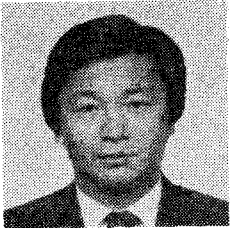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自動경첩 發明의 先驅者

(株) 錦山金屬 孫鍾在 사장



(孫鍾在 사장)

自動경첩은 發明企業人 孫鍾在 (株) 錦山金屬사장이 創出해낸 發明商品으로 國立工業試驗院 30萬回機能테스트에도 合格, 수요자로 부터 대단한 好評을 받고있다.

孫사장은 發明과는 거리가 먼 經營學을 전공한 H그룹 상무였다.

당시(80年) 상무실의 칸막이 경첩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보고 發明에 몰두하여 自動경첩을 發明, 오늘의 (株) 錦山金屬의 사장으로 부상했다.

自動경첩의 發明과 함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株)

錦山金屬을 設立한 것은 지난 82年 7月 15日. 주위의 반대에도 아랑곳 없이 強行한 관제로 어떤일이 있어도 成功해야한다는 強壓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때문에 무리한 投資로 倒産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發明과 經營에서 익힌 치밀한 計劃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孫사장이 發明한 自動경첩은 이제 實用新案 第27755號등 7件의 工業所有權으로 무장하고 國內市場은 물론 海外市場의 길도 열렸다.

지난 82年 및 84年 서울國際무역 박람회 出品 展示가契機가 되어 輸出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함께 86年 西獨國際發明展 銀賞 수상과 함께 世界的인 發明商品으로 인정되었다.

孫사장이 發明한 自動경첩은 2개의 경첩판으로 구성되는 보통의 경첩에 있어서 경첩판 사이의 축볼음부에 첩등 동작이 유연하고 원활하게 회동됨을 설치함과 함께 각 경첩판에는 패지딩과 이를 걸어줄 수

있는 들출부를 자기 형성하여 門이 열리는 관성력만으로도 간단 용이하게 門을 開放, 고정시킬 수 있게 하고, 또 門이 닫히는 탄성강도가 증가되도록 2개의 코일스프링을 패지사이로 연결 설치하여 一體化한 것을 설치함으로써 門을 열고 닫을 때 유연하고 원활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전혀 소음이 없다.

또한 自動으로 門이 닫히면서 90°·130°·180°에서 제동할 수 있다.

『아직 國內에는 類似製品이 없어 國內市場을 獨占하고 있지요.』

이 때문에 弘報등에 어려운 점이 많기도하지만 展望은 더없이 밝다는 孫사장의 說明.

이제 孫사장의 製品은 올림픽 기차촌·선수촌·아파트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美國·日本·싱가폴·인도·이스라엘등에 輸出과 함께 商談도 활발하게 推進되고 있다.

이제 孫사장의 所望은 世界 第一의 自動경첩을 量生, 市界市場을 석권하는 것이다. <68>